

광주시, 권역별 대기오염 총량관리 추진

4월3일부터 시 전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광주광역시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총량으로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시 전역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체, 자동차,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배출원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크게 사업장, 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할당량을 달성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동오염원의 경우 경유차,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 속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시설 등 생활오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인증된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도록 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3.6 $\mu\text{g}/\text{m}^3$ 에서 2024년 24.3 $\mu\text{g}/\text{m}^3$ 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시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행으로 16 $\mu\text{g}/\text{m}^3$ 까지 배출농도 33%를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춤형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시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북구, 서민금융진흥원 협력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협력 1대1 맞춤형 종합 컨설팅 무료 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4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 총 100개 업체를 모집해 지원하며 1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상권·입지 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마케팅 ▲점포 운영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세무·회계 ▲인테리어·익스테리어나 등 9개 분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과 경영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사후관리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으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철수 기자

아울러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홍보인쇄물, 현수막, 실내배너 등 20만 원 상당의 홍보물 또는 손소독제 제작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생경제과(☎062-410-6681)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전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인기몰이

임산부 건강 먹거리 제공·친환경농산물 판로촉진

전남도는 지난 3월 공급을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생산 농가와 임산부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돼 전라남도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시범지역 임산부는 총 비용의 20%인 9만 6천원을 부담하면, 최대 12개월간 총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택배로 직접 제공 받는 임산부와 판로가 확보된 농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 A임산부는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걱정인데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아기와 함께 임

산부가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2월 출산한 나주시 B산모는 "주변 지인에게 추천할 만큼 만족도가 높다"며 "주문 가능한 꾸러미상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기대가 크다"고 말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울도마토를 납품한 나주 C농가는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돼 걱정이 많았으나 최근 꾸러미용 납품량이 늘어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어렵게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꾸러미 공급업체인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의 나승운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임산부에게 건

강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라남도도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꾸러미용 농산물을 납품한 100여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확 전 단계부터 포장까지 안전성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권철 기자

본사사령

- ▲정길화
命편집국부국장
- ▲이광수
命편집국정치부장

☎2020년 4월 1일자

'코로나 19 꼼작마' 남구청사 내 향균 필름 부착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남구청사 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손잡이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구리가 함유된 향균 필름을 부착했다.

남구는 31일 "밀폐 공간 및 다수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구청사 및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향균 필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향균 필름이 부착된 곳은 남구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1~8호기 내·외부 버튼을 비롯해 청사 방문시 민원인들이 즐겨 찾는 1층과 사무실이 소재한 5~9층 출입문 손잡이 전체이다.

또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각종 엘리베이터 내·외부 버튼에도 향균 필름을 덧댔다.

구리가 포함된 향균 필름은 코로나 19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등 5개 기관 공동연구진이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마분지, 구리 재질 패널을 밀폐된 공간에 넣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죽는지 실험했는데, 구리 표면에서

엘리베이터·출입문 손잡이 및 남구문화회관에 설치 구리 함유로 살균 효과...개인 위생관리가 더 중요



서는 1시간 뒤 바이러스 농도가 절반으로 줄고, 4시간 뒤에는 완전히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72시간, 스테인리스에서는 48시간 동안 코로나 19가 감염력을 지닐 정도로 살아남았고, 마분지에서는 24시간이나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재 기자

남구 관계자는 "향균 필름에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서식을 어렵게 하는 구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염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다"고 말했다. /정관재 기자

동구, 4년 연속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공모선정

2억 원 확보... 소상공인 경영 강화로 일자리창출 기대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가 2020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공모선정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적정

사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동구는 먼저 '중추산업+@지원사업' 분야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자체 최초로 지역 중추산업지원센터의 축적된 데이터와 ▲창업·경영 ▲세무 ▲자금 ▲의식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담 멘토링과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청년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또한 '웹툰제작 인력양성 사업' 분야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 콘텐츠산업을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특히 웹툰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문화산업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산구, '안심식당 운동' 전개한다

코로나19 예방 실천 일반음식점에 스티커 배부, 물품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면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광산 안심식당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은 구민들이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 위해 일반음

식점 영업주가, 스스로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영업주는 영업장 매일 소독,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출입문 및 영업장 내 손소독제 상시 비치, 개인접시 제공 등을 실천하고 일일점검표 작성을 통해 이를 매일 점검

한다.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4월 3일까지 서약서를 작성해 광산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는 접수한 업소 영업장 입구에 안심식당 스티커를 붙이고, 관련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 안심식당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식품위생과(062-960-8783)에서 한다. /김준형 기자

우체국 예금

나를 알아주는 착한금융

소중한 자산, 잘 지켜주고 불려주고~ 금융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당신 결연 늘 우체국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금융

1588-1300

우체국 쇼핑

참 가까운 우체국 쇼핑

안심 쇼핑 1번지 우체국 쇼핑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

우체국 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당신을 우체국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우체국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정통우체국 FC 박이연, 광화문우체국 FC 신아연, 대구수성우체국 FC 김동숙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우체국 예금

나를 알아주는 착한금융

소중한 자산, 잘 지켜주고 불려주고~ 금융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당신 결연 늘 우체국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금융

1588-1300

우체국 쇼핑

참 가까운 우체국 쇼핑

안심 쇼핑 1번지 우체국 쇼핑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으로 문의

우체국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하고, **요금 5% 할인받으세요.**

우체국 준등기우편서비스

일반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경우,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카카오톡, SMS 등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